

# 19世紀 유유럽紳士服 Mode의 特性

楊 淑 喜

淑明女子大學校 家政大學 衣類學科

## Tendenzen der Herrenmode im 19. Jahrhundert in Europa

Sock hi Y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Sookmyong Women's University

(1984. 5. 27 접수)

### Zusammenfassung

Die Geschichte des Kostüms steht in unmittelbarem oder mittelbarem Zusammenhang mit der allgemeinen historischen Entwicklung derjenigen Länder und sozialen Schichten, die das kulturelle Gesicht und damit auch die Entwicklung der Mode einer Epoche bestimmen.

Im 19. Jahrhundert war das Bürgertum in Europa die herrschende soziale Schicht und daher auch modisch tonangebend. Die Mode des Bürgertums zeigte demokratisierende Tendenzen: Vereinfachung der Ausstattung und der Formen, wobei sich die Proportionen der Kleidung so gut wie möglich den des Körpers anpaßten. Die Herrenmode beugte sich zunehmend den Forderungen nach Zweckmäßigkeit; das galt zumindest für den Tagesanzug, der immer mehr zum Arbeitsanzug wurde und sich damit der Männerkleidung der arbeitenden Schicht annährte.

Die Industrialisierung trug ebenfalls dazu bei, daß die modischen und sozialen Privilegien in der Kleidung sich verminderten; die Textil- und Konfektionsindustrie mußte sich zwangsläufig auf die Bedürfnisse der Massen und auf deren Wunsch einstellen.

In der Herrenmode setzte sich die Tendenz zu funktionaler Einfachheit und Gradlinigkeit durch, d.h. funktional überflüssige Teile wie z.B. die Vielzahl der Kragen, Knopfreihen, überlange Schöße verschwanden; an die Stelle der Farbenfreude trat ein einfaches, einheitliches Grau, Schwarz, Blau und Braun. Diese Vereinfachung wurde zum Ausdruck der zunehmenden Demokratisierung, wurde aber zugleich auch Voraussetzung für eine neue Differenzierung des Klassenbewußtseins. Zum Statussymbol wurden die auffälliges Erscheinen vermeidende Eleganz und das Arrangement der einzelnen Kleidungsstücke zu einem harmonischen Ganzen; elegante Kleidung weist ihren Träger aus als Kenner des Modetrends und damit als zugehörig zum Kreis der modeavancierten Schicht. Diese Ambivalenz bestimmt auch die Mode des 20. Jahrhunderts.

### 머 리 말

19世紀의 유 유럽은 市民階級에 의해서 近代産業社會

가 신속히 定着, 發達한 激動의 時代였다. 이 世紀를 支配한 中心的 社會階層은 市民들이었고,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全般에 걸쳐 그들이 追求한 自由와 民主 社會에 대한 理想의 實現, 나아가서는 産業과 富의 自

바로 증대를 위하여 不斷히 노력하였고 또한 성공하였다. 이러한 과업을 성취한 市民들은 바로 市民階級の 紳士(gentlemen)들 이었으며, 이들은 또한 19世紀 男性衣裳 Mode의 主導者로 군림하게 되었다.

그들이 주드했던 19世紀 全般에 걸친 男性衣裳의 Mode가 어떠한 社會의 背景에서 展開되는 가를 밝히는 것도 복식사연구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는 一貫的이며, 直線的으로 발전하여 나간 19世紀 市民社會의 基本性格이 男性 Mode 발전의 본질적 요소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考는 西洋服飾史에서 일반적으로 據論하는 時代的(epochal) 分類方式(例컨대, Empire-style, 王政復古期, Romanticism, Biedermeier期, Victorian Ages, Eduardian Periode 또는 第2 rococo, Crinoline, Bustle 時期 等)을 止揚하였다. 왜냐하면 19世紀 男性 Mode의 발전은 거의 同一한 生活 및 社會意識下에서 展開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時代的 分類는 별로 큰 意義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本考는 第一部에서는 社會的 觀點에서 19世紀 男性 Mode의 본질을 설명하였으며, 第二部에서는 男性衣裳의 중요한 各部分의 형태상의 변화과정을 서술하였다\*.

## I. 衣裳의 社會的 背景

한 民族 또는 한 社會의 衣裳은 그 文化圈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발전과 脈絡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文化를 대표하는 社會的 支配階層이 一定한 期間동안 選好하여 着用하는 衣裳을 流行服飾, 즉 Fashion의 상 또는 Mode의 상이라 한다.

衣裳은 原始文化時代以來 實用的 目的을 위하여 착용될 뿐만 아니라, 그 人間共同體內的 社會的 機能을 발휘하고 있으며, 또한 藝術的, 倫理的 價値意識을 表出한다<sup>1)</sup>.

社會生活를 영위하는 인간은 一定한 社會集團에 소속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신의 安全과 特異性을 享有한다. 社會的 所屬感은 자신의 社會的 地位와 身分에 대한 自意識과 연결된다. 이러한 것들을 視覺的으로 가장 명료하게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은 住宅과 함께 衣裳인 것이다<sup>2)</sup>.

인간은 衣裳이란 용이한 수단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 계급적 신분,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예술적 취향을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이 의상을 통하여 자기가

\* 本考는 모자, 구두, 머리형, 장식품등의 accessories에 관한 記述을 省略하였다.

소속된 社會에서 자신의 지위와 意義를 示顯하고 이에 相應하는 社會的 認定을 얻고자하는 慾求는 流行服飾의 발전의 한 원동력이 된다<sup>3)</sup>.

또한 支配階層의 유행의 상은 그 社會構成員 전체의 美望의 대상이 되므로, 模倣心理를 자극하며, 유행에 대한 경쟁의식은 종종 사치와 낭비 및 非合理的 要素들이 流行을 지배하게 만든다.

그러나 유행의 상의 流動性(mobility)은 社會的 制約을 받는다<sup>4)</sup>. 封建時代 및 近代貴族社會에 있어서의 身分的 제약으로 말미암아 유행의 상은 정치, 사회 지배 계층의 所有物이였으며, 따라서 大衆市民들의 도망도 限界가 있었다. 經濟力이 약한 이들은 귀족社會의 高價의 사치스러운 의상을 유행에 따라 구입할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生業에 從事하는 이들은 有閑階層의 生活方式에나 맞는 非 實用的인 의상을 입을 수는 없었다.

### 1. 19世紀 市民衣裳의 社會的 背景

市民社會의 發展은 封建貴族社會의 衰退를 가져왔다. 市民階級은 近代的 生産과 商業으로 축적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자신의 社會的 地位를 高揚하였으며, 이에 따라 市民階級の 固有性을 表出하는 衣裳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알프스山脈北쪽 지역에서 人文主義가 제일 먼저 꽃핀 荷蘭드는 獨自的으로 固有한 市民衣裳을 발전시켰다<sup>5)</sup>. 그리고 30년 戰爭(1618~1648)의 긴 渦中에서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진 服飾은 宮殿貴族服飾이 아닌 편리하고 實用的인 軍服型的 의복과 商人계급들의 日常服의 形態들이었다<sup>6)</sup>.

近代的 市民衣裳의 礎石은 18世紀에 들어와서 英國에서 다져지기 시작하였다. 한때 君主制를 폐지할 정도로(Cromwell의 共和體制 1648~1658) 정치적 세력을 증대한 英國의 市民階級은 政治的, 社會的으로 封建的 要素를 成功的으로 제거하여 갔다<sup>7)</sup>. 비록 君主制가 復活하였지만 그들의 市民社會의 自由와 權利를 계속확대할 수 있었다.

英國市民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성공에 대한 自負心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市民文化의 主導勢力으로 浮上하였고, 18세기에서 부터는 시민계급의 복식은 곧 영국社會의 유행복식으로 발전하여 갔다<sup>8)</sup>.

市民階級에 의한 社會的 民主化, 大衆化는 폭 넓은 社會階層들이 유행의 상을 着用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부여하였고, 따라서 귀족社會의 유행복식은 身分的 特權의 性格을 상실하게 되었다.

服飾의 民主化에 획기적 영향을 미친 역사적 大事

件은 프랑스大革命(1789년)이었으며, 이로서 西洋服飾史의 새로운 장이 열리었다.

프랑스 革命의 國民議會는 衣裳의 階級的 區分을 法的으로 철폐하였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는 自由를 許容하였다.

자유로운 民主 市民社會에 있어서 누구나 個人的 能力에 따라 社會의 地位를 向上시키며, 또한 個人的 趣向에 따라 衣裳을 自由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sup>10)</sup>. 이로서 市民社會의 服飾의 流行은 水直的 流動性(vertical mobility)의<sup>11)</sup> 힘과 자유를 얻게되어, 近代市民社會에서 流行이 쉽사리 대중화할 수 있는 基盤이 造成되었다.

## 2. 英國 紳士服의 影響

한 時代의 生活方式를 지배하는 時代 精神은 服飾의 形成過程에 결정적 影響을 미친다<sup>12)</sup>. 近代商業社會의 主導勢力인 市民들은 不斷한 노력과 경쟁을 통하여 자신의 富를 蓄積하여야 했다. 他人과의 경쟁에서 더 많은 판매선적과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가들은 옷 치장과 꾸밈에 헛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으며, 또한 활동에 부적당한 의복은 삼가하였다. 지나친 옷 자랑과 사치는 결코 사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18世紀 後半期 英國의 事業家들 역시 그들의 합리적이고, 건실한 생활정신을 반영하듯이, 귀족의상의 번거로운 장식과 과장된 선, 그리고 호화롭고 밝은 色調를 기피하고, 간결한 선과 검은색, 갈색, 회색등의 단순한 色調의 옷감을 그들의 의상의 기본요소로 選好하였다.

이러한 남성의상의 유행을 주도하는 계층은 시민적 특권인사들, 다시 말하면 富有한 紳士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구심리에 따라 귀족계급의 복식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下層市民의 거칠고 멋 없는 의상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유행(Mode)을 창안하였다. 이에 英國의 織造技術의 발달로 良質의 고급 옷감이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므로 高尚하고 格調 높은 의상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고급옷감을 품위있는 의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裁斷技術이 英國紳士服飾의 근본적 요소로 등장하였다.

## 3. 프랑스 革命과 市民衣裳의 展開

프랑스大革命을 통하여 市民社會가 爭取한 政治的 自由는 또한 服飾의 解放을 가져왔다. 各界 各層의 사람들은 제나름대로 服飾의 멋을 찾으려고 하였고, 따

라서 하나의 支配的 流行樣式이 出現하지 못하였다. 共和期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탈선적 현상으로 나타난 Incroyables(상상밖의 짓을 하는者)들이 Paris에서 무절제한 형태의 유행복식을 시도하였다<sup>13)</sup>. 이들은 Frock 上衣를 때풀게 만들어 입고, 조끼단추를 틀리게 끼고, 기형적인 큰 모자를 쓰고 Paris 유행가의 대표자로 유행하였지만 곧 사라지고 말았다.

王黨派의 追從者들은 계속 宮殿服飾을 견지하려는 반면에, 혁명세력은 이를 철저히 배격하였고, 예술가들에게 위탁하여 古代 그리스, 로마의 民主, 共和政 時代의 古典樣式의 衣裳을 모형으로 하여 혁명의 새로운 복식을 창안토록 하였다. 혁명의상을 構想한 화가인 Jacques Louis David는 古代 그리스, 로마의 英雄들을 主題로 삼은 그림을 통하여 市民革命의 이상을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의상을 혁명의상으로 제안하였다.

시민혁명의 정신과 이념을 표현한 David의 예술과 衣裳은 정치적, 예술적으로 많은 共感과 감명을 불러 일으켰지만, 유행은 결코 어느 하나의 예술적 指針이나 이념적 규칙에 형성될 수 없듯이, David의 구상에 따른 혁명복식은 극히 제한된 반응을 얻었을 뿐이었다.

혁명의 과격진영인 자코뱅派는 David의 古典樣式에서 단지 짧은 頭髮型인 Titus머리형만 받아들여 유행이 되었을 뿐이다. 革命期의 衣裳은 오히려 노동자, 小市民들이 입는 日常服, 作業服이 無原則적으로 混合된 것이었다. 검은 천의 綿織上衣, 짧은 조끼, 무릎바지(culotte)대신 나타난 길고, 폭이 넓은 통바지(Pantalon-Sanculotte), 나막신들은 소시민, 노동자, 농민 및 船員들의 의복이었다. 혁명의 가장 인기있는 상징물은 빨간색의 “자유 의 모자”로서, 이는 혁명에 가담했던 노예선 선원들이 쓰던 챙이 없는 덮개모자였다.

프랑스 혁명의 共和政은 Napoleon의 皇帝即位로 사라졌으나 Ancien regimè과 같은 身分制度는 復活되지 않았다. 오히려 市民階級은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에 깊숙히 관여하였다. 무엇보다도 Napoleon 治世下 프랑스의 産業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두었다. 예컨대 1789년에서 1805년 사이에 기계화된 織造機의 수효는 89臺에서 3,300臺로 증가하였다. 또한 Napoleon은 프랑스산업을 英國의 織物수출정책에서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 우수한 綿織技術을 先占하고 있는 영국은 麻織 및 綿織物옷감으로 제조된 영국紳士의 市民服飾은 유럽내륙에 大量 수출, 流行시킴으로써, 프랑스 織造산업에 큰 위협이 되었다. 프랑스 유행계의 英國狂(Anglomanie)<sup>14)</sup>으로 말미

암아 프랑스 織造業은 한때 거의 破産에 이를 정도였다.

이를 구하기 위하여 Napoleon은 英國産 모스린, 綿織物, 린넨製品的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이는 후에 大陸封鎖令으로 까지 발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시민혁명을 달성한 영국시민의 복식은 프랑스인들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며, 영국식 紳士服飾은 프랑스 男性流行을 완전히 압도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를 중심으로한 유럽 대륙의 유행복식은 男性복식과 女性복식이 각기 다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프랑스 Mode業界는 여성복식에서 傳來의 優位性을 계속 유지하면서 유럽과 美大陸의 여성 유행을 左右할 수 있었지만, 남성복식은 英國紳士服의 취향에 따라 單純하고 合理的인 의상으로 발전하여 갔다.

앞에서提及한 바와같이 市民社會의 男性들은 치열한 산업경쟁사회에 있어서 자신의 富와 社會的 地位를 향락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王政復古時代에 있어서도 市民階級의 紳士들은 그들이 爭取한 정치적 동등권, 계급적, 경제적 지위를 계속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市民的 單純美”<sup>15)</sup>가 지배하는 服飾을 계속 選好하였다.

男性은 그들이 획득한 사회적 특권을 過示하는 사업은 女性 Mode에 위임하였다<sup>16)</sup>. 그리하여 여성유행복식은 여전히 유한계급의 富와 權威를 자랑하는 대상물이 되었다. 남성복식이 단순한 優雅美를 表出하는데 力點을 둔 반면에, 여성유행복식은 19世紀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유행의 諸樣式에 있어서, 非合理的 형태에 사치와 낭비를 요구하는 Mode로 逆機能的 面貌를 보일 뿐이었다.

#### 4. Dandyism과 近代의 裁斷技術

의복의 각 부분의 넓이와 길이의 상관관계를 조절하여 의복의 모형을 구성하는 재단기술은 服飾의 流行的 變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sup>17)</sup>.

의상의 한 부분이 既存形態와는 달리 새로운 高, 底長, 短 및 幅의 大, 小로 變形될 경우 이들이 全體와 一定한 調和를 이루도록 配慮하는 것이 재단기술의 임무이다. 나아가서 새로운 모형의 의상은 實用的, 美學的 次元에서 認定을 받고, 受容되어야 Mode衣裳으로서 유행하게 된다. 한 服飾의 Mode는 時代的 樣式의 테두리와 그 時代의 생활방식 및 시대정신과의 有機的 (organic)상관관계속에서 점진적으로 변모하여 高度期

를 거쳐 쇠퇴하게 된다.

服飾의 單純美와 우아함을 요구하는 英國紳士의 趣向은 精巧한 裁斷藝術의 발달을 가져왔다<sup>18)</sup>. 이는 18世紀末부터 19世紀中半期까지 男性服飾의 根幹을 이루었던 流行樣式인 Dandyism의 기본원리가 되었다. 이 Dandyism의 創始者는 英國의 裁斷師 George Bryan Brummell로서, 그가 創案한 Dandy服飾은 全 Europe에 유행되며 19世紀 前後의 服飾의 諸類型을 支配하였다. 例컨데 프랑스 革命期의 渦中속에 一時的으로 나타났던 Incroyables, Empire style의 服飾, Napoleon 皇帝期의 새로운 궁정의상 및 獨逸等地에서 시도되었던 民族衣裳 및 王政復古期의 紳士服裝은 Dandy의 流行衣裳에 압도되어 버렸다<sup>19)</sup>.

Dandyism服飾의 要諦는 정확히 재단하여 몸의 각 부분에 빈틈없이 맞도록 옷을 만드는 것이다<sup>20)</sup>. 셔츠 (shirt)는 물론, 양말, 모자, 장갑에 이르기까지 꼭 맞도록 하였다. 例컨데 Brummell은 자기 상점에서 파는 장갑의 완벽한 제조를 위하여 두개의 제조업소가 장갑의 손가락 부분과 손등 부분을 나누어 단들도록 하였다.

英國式 單純性과 優雅美를 강조하기 위하여 겉옷 (coat와 바지)에 있어서 화려한 무늬, 수예품, 장식을 제거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衣裳의 각 부분이 이루는 우아한 色調의 調合(combination)을 服飾美의 생명으로 삼았다. 그가 選好한 衣裳의 combination은 例컨데 비로드 깃이 달린 靑色上衣(coat)에 흑색의 바지와 구두, 흰 목수건을: 멋진 매듭으로 묶고, 높이 솟은 opera hat에 항상 흰 손장갑을 휴대하였다. 저녁에는 흑색 evening dress에 흰색의 조(허리를 조인 Waist coat)을 着用하였다<sup>21)</sup>. Brummell의 이러한 服裝은 현대에 까지 紳士正裝의 表準이 되고 있다<sup>22)</sup>.

Brummell의 服飾중에서 가장 멋을 내는 부분은 목수건으로서, 그의 목수건을 묶는 방식은 하나의 독창적 예술로 까지 인정을 받았다. 목수건에 풀을 맥여 세우거나, 水準으로 뻗치도록 하여 멋지게 매듭으로 묶는 기술은 London의 모든 멋쟁이들의 경탄의 대상이었다<sup>23)</sup>. Brummell의 열렬한 추종자인 프랑스의 소설가 Balzac은 “네타이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정도로 목수건은 19世紀 初半期の 모든 流行狂들의 好物品이었다<sup>24)</sup>.

Brummell에 의하여 全 유럽에 유행하게 된 Dandyism은 그 程度를 벗어나 半宗教的 儀式의 樣式을 띄게 되었다. 富有的 Dandy들은 하루에 3~4 차례나 서로 다른 combination의 의복을 갈아 입어야 하였고,

30個의 목수건, 매주 20개의 사쓰, 두 타쓰의 손수건, 10개 이상의 여블바지, 한 타쓰 이상의 조끼와 양말을 소유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2~3週이상 同一한 의복을 계속 입어서는 안되며, 단골 재단사, 製靴師, 모자제작인들로부터 예약제로 새로운 것을 공급받으며, 사용한 것을 貸金의 일부로 돌려 주었다<sup>25)</sup>.

목 수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Shirt로서, 이는 반드시 윤기를 발하는 純白色으로 청결하여야만 하므로, 프랑스의 Dandy들은 Shirt를 London으로 보내어 세탁하도록 하였다<sup>26)</sup>.

Dandy의 의복중에 유일하게 화려한 면을 과시하는 것은 조끼였다. 이 조끼(Waist coat)는 비록 귀족시대의 유물이지만, 비단이나 비로드를 옷감으로 만들었으며, 각종 자수와 무늬로서 화려하게 꾸몄다.

그러나 Dandyism의 멋과 사치는 제한된 富有層紳士들만이 享有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大衆的 流行으로 발전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내적 모순을 갖고 있었다<sup>27)</sup>.

Dandyism이 비록 非 現實的 要素를 지니고 있었지만, 19世紀의 紳士服飾에 근본적 영향을 미쳤다<sup>28)</sup>. 재단기술이 신사복제조에 절대적 요소로 인정받게 되어, 裁斷師의 시대가 열렸으며, 무엇보다 화려함을 배제하고, 어두운 색의 옷감을 選好함으로써, 이는 現代까지 男性衣裳의 基本色相으로 정착되었다. 특히 겉옷의 단순하고 우아한 형태와 간결한 線의 強調는 實用化 民主化하여가는 男性服飾의 기본적 윤곽을 형성케 하였으며, 이 테두리 안에서 19世紀의 紳士服의 Mode는 의상의 細部(details)에 力點을 두고, 신속하고 다양하게 전개되어갔다<sup>29)</sup>.

## II. 18世紀 紳士服 Mode의 變遷

### 1. 上衣 frock의 變遷

19世紀 男性服飾중에 가장 대표적인 上衣는 18世紀 中葉 英國의 市民階級 紳士들이 着用하기 시작한 「프록」(frock)이라 하겠다. 貴族社會의 虛勢와 奢侈를 반영하는 화려한 무늬와 장식을 배제하고, 겸소한 色調에 活動에 便하도록 재단된 上衣인 frock(frock-coat, tailcoat, 獨-Frack, 佛-frac)은 市民階級の 合理的 生活方式에서 발전하였다. 원래 18世紀 將校服의 형태를 본 딴 frock은 英國에서 우선 승마복으로 애용되었다<sup>30)</sup>. 몸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만든 frock은 1760年代에 市民階級の 日常服으로 定着되었으며, 單色の 縵

은 綿織으로 제조된 무릎까지 내려오는 이 긴 上衣는 英國는 물론, 1770년 이후에는 尤 유럽大陸에 流行하게 되었다.

Goethe의 소설 「젊은 Werther의 슬픔」의 주인공이 입은 의복은 바로 이 英國式 frock에 노란색 조끼와 무릎바지를 착용한 것으로, 「Werther 衣裳」이라는 이름으로 18世紀 後半期 尤 유럽 市民階級の 젊은 紳士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sup>31)</sup>. 이 英國式 frock은 몸에 맞는 합리적 재단, 좁은 소매, 간결한 형태의 옷깃, 실용적인 단추의 배열등 活動의 便易性 때문에 日常服, 旅行服으로 실용적이면서도 멋있는 上衣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sup>32)</sup>.

프랑스인들은 겸소한 영국 스타일에 사치스러운 장식은 달았으며, 유행에 따라 frock의 아랫자락을 비실용적으로 길게 또는 짧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프랑스式 frock은 「frac habillé」(치장한 frock)이라 불렀으며, 午前外出服이나 舞蹈會衣裳으로도 착용하였다.

프랑스에서 從來에 착용하던 긴 上衣인 Justaucorps도 frock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여 「frac à la française」로 불리웠다<sup>33)</sup>.

프랑스 革命前 frock은 市民階級の 身分服으로서 第



[사진 1] 19C 初 夜會用 frock. 허리춤, 자수놓은 조끼 (in : Bilderlexikon der Mode p. 562).

三階級の 代表들이 三部會議에 입고 나와야 했던 服裝이 되었다. 그러나 革命후 이는 市民階級の 正裝服으로 格上되였으며, 服地의 品質改善과 우아한 재단기술에 힘입어 市民社會의 代表的 衣裳으로 발전하였다[사진 1].

19世紀 中葉까지 frock 은 紳士의 外出服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儀典用, 宴會用 衣裳으로 착용할 수 있는 유일한 男性服裝이었다.

frock 은 19世紀 初葉에 두가지 基本形態로 定着되었다. 프랑스 共和政期에 허리부분이 가슴밑으로 옮겨가서 좁은 허리형(Taille)이 사라지게 되어, 直線美가 더욱 부각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인은 frock 을 단지 「habit」—옷 이라는 평범한 명칭만 부여하였을 뿐, 그 기본형에는 하등의 변화를 가하지 않았다. 단지 허리부분이 짧아졌고, 가슴덜개 깃이 특별히 大型化하였다. frock 의 線은 下端의 밑자락이 모서리지게 재단된 영국式(à l'anglaise)과 둥글게 재단된 프랑스式(à la française)의 두 가지가 있었다.

frock 의 형태는 두가지로 大別된다. 하나는 Salon frock 型으로서 가슴부분에서 水平으로 cut 되었고, 下端의 뒷 자락(tail)과 팔꿈치 높이에서 허리 뒷 부분이 좁게 재단된 것으로 오늘날의 morning suit 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었다[사진 2].

第二의 형태는 승마용 frock 으로서, 특징은 二개의 단추가 달려 左·右로 잠글 수 있었다. 가슴을 열 경우 옷 깃의 양 가장자리를 접도록 옷 깃이 넓었다. 이 승마용으로 재단된 frock 은 紳士外出服으로 轉用되어 高級유행의상으로 애용되었다<sup>32)</sup>. 1810年頃 두 종류의 frock 은 bob tailed frock(coat)로 합쳐졌고, 下端쪽 리는 hip 線에서 直線으로 재단되었다.

2. 上衣 Gehrock(獨) Jacket 의 發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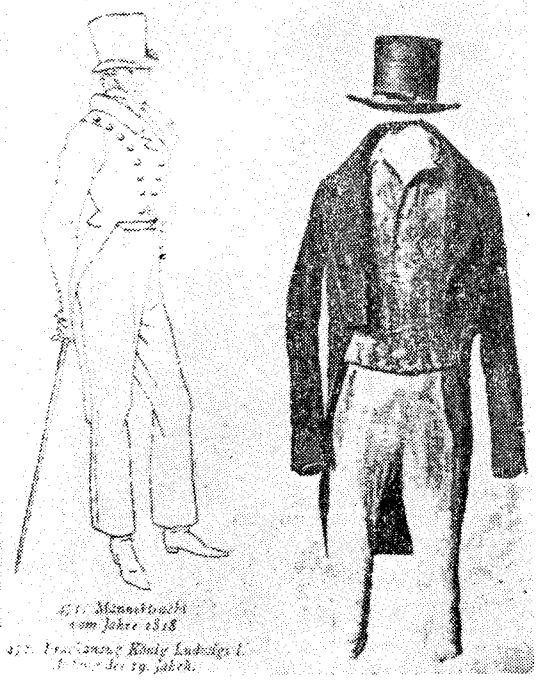
frock 와 類似的한 발전을 하게 되는 다른 하나의 男性 上衣는 外套用的 걸옷인 Rock(獨)—great coat(英)이다. 19世紀들어와서 이 外衣는 frock 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準外套型의 上衣로 발전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원래 이러한 걸옷은 Surtout였지만, 영국에서 건너온 승마복(riding coat)이 변형되어 비바람을 막는 걸옷으로 redingote 가 되었다. 이 redingote 은 下端이 유행에 관계없이 넓고, 길게 재단되었고, 허리를 좁혔으며 무릎아래까지 덮도록 되었고, 넓은 옷깃이 부착되었으며, 가슴부분은 一列 또는 二列로 된 단추로 채우게 되었다. 이는 18世紀 후반기에 프랑스에 들어와서 Jaustaucorps 를 대신하여 널리 애용되었다. 1810年代 이 redingote 은 편리한 上衣로 frock 과 같이 널리 유행되었다. 이 옷의 下端은 점차적으로 짧아졌고, 따라서 外套의 機能은 完全히 상실하게 되었다. 이는 나중에 外出服上衣 Gehrock 또는 Jacket 으로서 市民의 땀 수 없는 의상이 되었다<sup>33)</sup>.

1820년경 frock 과 함께 redingote 에서 발전한 Jacket 은 裁斷上의 改善을 통하여 몸에 더 잘맞는 간결하고 우아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옷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각각 따로 재단하여 이었으며, 가슴을 덮는 것부분도 별도로 재단하였다. 특히 가슴덜개와 hip 들레 및 옷깃에 실을 넣어 잘 퍼지도록 하여 반듯이 퍼지도록 하였다. frock 은 옷이 몸에 꼭 맞도록 하여 전면의 단추를 꼭 채울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모양이 흉한 부분은 collar 깃이었다. 높이 솟은 collar 깃은 마치 멍에처럼 보였다<sup>34)</sup>[사진 3].

1840년이후 frock 과 Jacket 의 목깃은 목이 좁고, 높이도 낮게 재단되었다. 이 당시 가장 인기있던 의복은 승마용 frock(Reitfrock 獨)으로서 이는 frock 과 Jacket 의 中間型이었다. frock 과의 차이점은 아랫자락이 좁더 넓어진 것이다.

1850년경 이 두 가지 上衣의 허리부분이 다시 길어졌으며, 등부분도 다시 넓어졌고, 또한 collar 깃도 높



[사진 2] 19C 初의 프락(Bayern 王 Ludwig 의 프락) 前面의 直角裁斷, 넓은 옷깃, 二列 단추의 무늬조끼(I(in : Köhler, Kostümkunde p. 425)



[사진 3] 1834年代 外出服(Gehrock), 2列조끼, Bow-tie.(in : Bilderlexikon der Mode p.562)

게 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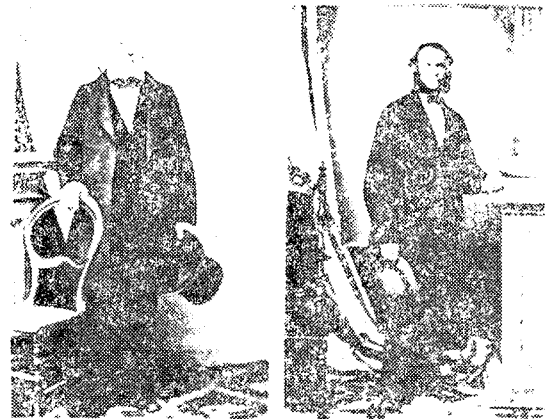
19世紀 후반기에 frock 과 Jacket 의 기본형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frock 은 앞깃이 좀더 넓었고, 뒤로 완만하게 흐르는 꼬리부분으로 차이가 났었다.

frock 의 Mode 는 details 의 變化에만 局限되었으며, 그 色調는 어두운 색조의 옷감에서 완전히 黑色으로 統一되었고, 결국 frock 은 儀典用衣裝으로 格上되어 流行服의 地位를 상실하였다.

19世紀 後半期에 가장 애용된 上衣는 Jacket 또는 Sakko 가 되었다<sup>37)</sup>. Jacket 의 재단은 허리부분의 곡선을 없앴으므로 옷의 前後面이 直線의 모습을 나타내었다[사진 4]. 이는 현대의상의 기본성격인 실용적인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sup>38)</sup>. Jacket 은 職場服이나 外出服으로 共に 착용할 수 있는 上衣로 애용받게 되어 “裁斷上의 民主化”가 內實적으로 實現되었다<sup>39)</sup>. 이 Jacket 의 모양은 과거 중세기 노동자의 험령한 上衣나 프랑스 革命期의 노동자, 조서민이 입었던(Carmagnole) 衣服線이 트리어 市民階級の 紳士服 Mode 의 線型으로 受容되었다[사진 5].



[사진 4] 1859年代 Morning coat, Chesterfield 外套. Tweedside Jacket.(in : The Cut of Men's Clothes 1800~1900 Plate 27)



[사진 5] 1870年代 外出服 Jachek(Gehrock) (in : J. Stockar, Zürich-Mode durch die Jahrhunderte p.110)

19世紀末 Jacket 다음에 새로이 출현한 上衣의 形態는 Cutway 로서 우아하게 재단되며 외준복 또는 직장용 의복으로 애용되었다. 20世紀 轉換期에는 Jacket 에서 발전된 Smoking 이 나타났다. 이는 이름 그대로 喫煙室用 Jacket 으로 비단 옷감을 달은 호화스러운 모습을 하였다. Smoking(Dinnerjacket-英, Tuxedo 또는 Monkey suit-美)은 single 또는 double 式이 있으며, 夜會服, 儀典服으로 愛用되었다<sup>40)</sup>.

19世紀 全般에 걸쳐서 男性上衣는 그것이 frock 이

든, redingote, Gehrock, Jacket 또는 Smoking 이든, 近代産業社會의 發達과 같은 맥락에서 展開되었다.

産業社會가 要求하는 能率, 合理性, 實質主義에 相應하여, 流行을 主導하는 市民社會의 紳士들은 一切의 거추장스러운 꾸밈, 장식 또는 화려한 色相을 배제하였고, 간결한 線과 單純美가 表出하는 우아함을 衣裳美의 基準으로 삼았다. 이는 服飾의 民主化를 可能케 하였으며, 또한 流行의 大衆化를 구현케 하는 바탕이 되었다.

3. 外套(Mantel)의 發展

近代男性衣裳中에 實用性的 原理를 가장 잘 반영한 의복은 外套였다<sup>41)</sup>.

17世紀以來 外套는 유행의 變과는 無關하게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에 적합한 덮개의 형태로서 거추장스러운 정도로 품이 넓었으며, 팔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할 정도였다. 18世紀에 들어와서 이러한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덮개형 의투에 소매를 달게 되었다. 이로서 덮개형 의투외에 소매가 달린 의투가 나타나게 되었다.

18世紀 프랑스에서 덮개 걸옷으로 입은 것은 Cape 形의 Surtout였다. Cape는 中世以來 유럽에서 널리 애용된 덮개옷 이지만 프랑스에서는 18世紀에는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Cape가 널리 유행하였다<sup>42)</sup>. 半圓形의 소매없는 넓은 덮개. 지나지 않는 Surtout는 영국식 의투의 영향을 받아 사라지게 된다.

外套로서 近代的 형태를 갖추게 된것은 앞에서 소개한 영국식 Redingote였다.

19世紀 初期 프랑스에 유행하게된 Redingote는 의투보다는 上衣로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덮개 옷으로는 Pelerine이 나타나[사진 6], 이것이 19世紀初에서 부터 frock 위에 걸쳐입는 우아한 덮개외투로 발전하여 1830年代에 까지 애용되었다. 英國에서 전파된 다른 종류의 의투는 Spenser였다. 半코트 형태의 길이가 짧은 이 Spenser는 1790년경 부터 上衣用의투로 男·女의 걸옷으로 유행하였다<sup>43)</sup>.

19世紀初의 가장 대표적인 긴 外套는 Garrick이었다. 이 역시 英國에서 전파되었으며 넓은 장식용 것이 三, 四重으로 어깨와, 가슴을 층층히 덮고있는 重厚한 모습의 外套였다[사진 7].

그러나 이러한 外套들의 기본형태는 19世紀全般에 걸쳐 거의 변함이 없었다. 단지 옷의 넓이와 길이, 외투깃 및 어깨덮개의 수효와 길이가 Mode變化의 中心을 이루었다.



[사진 6] 1830年, 프락위에 걸친 Pelerine(in : Bilde-lexikon der Mode p.596)



[ 사진 7] 여행용외투 Garrick의 原型사진(Praktische Kostümkunde I. p.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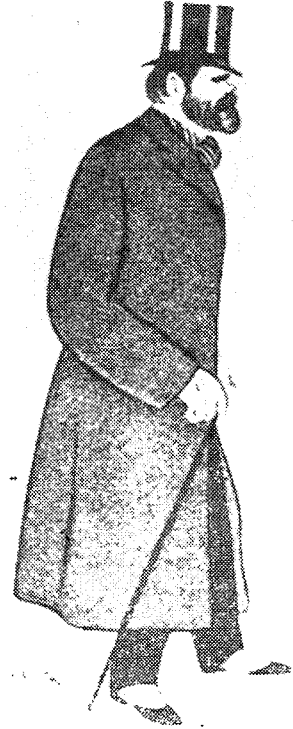


[사진 8] Havelock 外套에 짧은 Cape 型 Pelerine 을 겹으로 덮은 1834年紳士 Mode 女性用 Havelock(右)과 Pelerine (iNiBilderlexikon der Mode p. 598)

예컨대 1830년경 외투의 어깨덮개깃의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그 길이는 더욱 길어져 소매에 까지 달하였고, 목 언저리의 외투깃은 좀더 넓어졌다. 이 목깃은 옆으로 접을 수도, 높이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이 목깃은 털장식으로 꾸미기도 하였다. 이러한 외투는 주로 덮개로서의 사용목적에 따라 단추로 잠그기 보다는 외투의 목 부분에 고리와 쇠줄을 달아서 여미었다. 이러한 형태로서 풍만하고 육중한 모습의 사치스러운 소매가 없는 것 Havelock 외투가[사진 8] 19세기 中半에서 유행되었다<sup>46)</sup>. 이 외투는 옷깃을 접승털로 장식하고 흰 공단을 안으로 받친 긴 외투로서, Pelerine 을 함께 착용하였고, 女性도 같은 형의 외투를 입었다.

重厚한 모습에 소매가 달린 외투로 유행된 것이 Raglan 외투이다<sup>46)</sup>[사진 9]. 이 외투의 특징은 어깨와 팔 부분을 함께 재단하여 어깨와 上體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었다.

이렇게 크고 풍만한 외투는 防寒, 防雨用 덮개외투로서 그 최상의 기능을 다할 수 있었지만, 1830年末에서부터는 점차로 부거운 의복으로 취급되었다. 간편한 외투로는 Polend 의 혁명운동에 자극받아 Polonaise 라 불리는 가장자리에 레스 장식이 달린 짧은 코트가 한때 유행하였다.



[사진 9] Reglam 外套. 現代外套의 基本型을 이룸. (in : Bilderlexikon der Mode p.598)

가장 새롭고 간편한 형태의 외투로 유행된 것은 바로 Tweed이다. 푸대모양으로 길고, 허리부분이 거의 파이지 않은 가벼운 모직으로 만든 외투로서 높이 솟은 옷깃이 달렸다 이는 1840年代 전 유럽의 대도시와 유흥지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노동자들이 입는 윗옷의 모양을 닮은 Tweed는 한때 조롱의 대상이 되었으나, 처음으로 남성윗옷에 허리를 좁히지 않아도 우아한 남성미를 과시하는 의복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Tweed는 또한 간편한 男性上衣인 Jacket의 前身으로서, Tweed의 형태를 이루는,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線이 19世紀 남성의복의 기본적 線으로 인정받게 되었다<sup>46)</sup>.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世紀 후반기에 있어서 외투는 큰 소매와 넓은 幅의 덮개깃들이 없어지고 단순하고, 유연한 모습의 외투로 발전하였다<sup>47)</sup>. 이로 말미암아 외투는 上衣(coat)와 유사한 형태로 축소하였다[사진 10]. 다른 上衣과 구별하기 위하여 비로드 천으로 장식된 외투깃과 圓形의 어깨덮개를 부착하였다.

#### 4. 뽀따롱(pantalons)의 出現

貴族社會 庶民의 作業服이었던 통바지는 프랑스혁명

의 정치적, 사회적 변혁과정을 통하여 市民服裝으로 定着되어 19世紀를 거쳐 현대까지 남성복식의 중요한 의상으로 발전하였다.

18世紀까지의 바지는 무릎바지(Knee-breeches-英, Kniehose-獨)로서, 이는 바로 무릎위에서 끈이나 쇠장식으로 조여 댔었다. 18世紀 後半期 英國에서 上衣와 조끼의 前面길이 짧아지는데 비례하여 무릎바지는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여, 1780年代에는 무릎밑에서 끈으로 묶었다. 그러자 긴 장화대신 短靴가 유행함에 따라, 바지길이는 더욱 길어져 1790년경에는 종아리를 덮었다. 바지의 幅은 다리에 꼭 붙도록 좁게 재단되었고 이러한 바지를 “양말바지”라고 불렀다. 바지의 色相도 화려하고 밝았으며, 줄무늬나 check 무늬가 유행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무릎바지 뿐만 아니라, 영국식 긴 바지가 近代式 바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sup>48)</sup>.

혁명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Paris에 進入한 노동자 선원들은 그들의 작업복인 길고, 밑이 열린 통바지를 입었다. 이를 모방하여, 혁명시민들이 긴 통바지를 입기 시작하였고 무릎바지(culotte)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 이들을 Sansculottes 라고 불렀다<sup>49)</sup>.

이 통바지를 이때리 Harlequine 익살광대극에 필링 거리는 긴 바지를 입고 나오는 익살꾼의 이름을 따서 「팬따롱」(pantalon)이라고 불렀다. Pantalon의 출현으로 19世紀를 거쳐 현대까지 이르는 긴 바지의 기본형이 定立되었다.

물론 이 긴 바지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변모하지만, 이는 단지 幅과 길이의 變動에서 오는 실루엣상의 變化에 지나지 않았다. 바지 옷감의 色相은 上衣의 어두운 色과는 달리 밝고, 다채로운 무늬를 보였다. 1800년경 짧은 조끼가 유행함에 따라 바지는 허리 윗쪽으로 높이 묶게 되었다.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리대신 어깨벨방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815년경 바지는 발등을 덮을만큼 길어졌다. 그후 유행에 따라 길이의 변화는 있었지만 오늘날 통용되는 바지의 길이는 이때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의 한 유산인 pantalon은 처음에는 멋이 없는 옷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곧 社會의 日常服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sup>50)</sup>.

1825년경에 발등까지 덮는 바지의 下端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가죽 띠를 부착하여 구두밑창으로 둘러묶게 되었다. 이로써 길고 날씬한 모습의 바지형이 유행하였다. 바지의 길고 날씬한 線을 강조하는 추세는 지속되었고, 발목 부근의 바지 폭은 더욱 좁아졌다<sup>51)</sup>[사



[사진 10]



[사진 11]

[사진 10] in : Black/Garlant, History of Fashion p. 212

[사진 11] 外出服(Gehrock)과 좁은 긴바지(1820年代) (in : Bilderlexikon der Mode p.601)

진 11).

1830年代中 일식 á la matelote 라는 바지형이 유행하였다. 이는 무릎까지는 幅이 좁았지만 무릎 밑으로는 鍾모양으로 넓어졌다. 이에따라 바지 下端은 넓어졌다 좁아졌다하는 유행이 되풀이 되었다. 바지용 옷감은 綿織物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쉽게 해짐으로, 질기고 거치른 옷감이 많이 사용되었다. 東인도産의 Nanking 무명과 Bucksin이라는 양가죽으로 만든 바지가 가장 애용되었다<sup>52)</sup>.

直線의 날씬한 우아함을 나타내는 바지형은 1850~1870년 사이에 형태상의 異變을 겪게된다. 신발을 덮는 下端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또한 신발에 묶는 끈도 매지않게 되어, 바지는 너풀거리게 되었다. 1865년경 유행한 바지는 우스꽝스러운 형태로서, 다리의 上部와 下部는 몸에 붙도록 좁게, 무릎중심에서는 넓게 부풀어난, 마치 가운데가 튀어나온 굽은 물병모양의 바지가 유행하였다<sup>53)</sup>. 1870년 이후 이 畸型의 바지는 사라지고 다시 좁은 바지가 유행의 본형을 찾았다.

Pantalon에서 발견한 긴 바지는 19世紀紳士服바지의 유일한 존재였으며, 합리적인 市民生活의 日常服이자 유행복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5. 조끼의 Mode

19世紀의 市民社會의 모든 의상들이 單色과 간결한 線의 美를 追求하는 발전과정을 따르는데 比하여, 조끼와 목수건만이 유행(Mode)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였다. 검은색 위주로 발전하는 市民服飾에 조끼만이 유행의 화려한 색상과 무늬를 과시하는 의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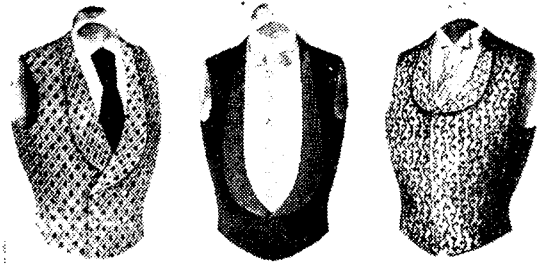
조끼의 Mode는 길이의 長·短, 조끼 깃의 幅의 변화 및 着用하는 조끼의 수효등에 따라 변화, 발전하였다.

19世紀 前·後의 유행은 frock 아래 3~4개의 조끼를 겹쳐 입는 것이 유행하였으므로, 제일 겹에 입는 조끼의 깃은 넓게 옆으로 접도록 裁斷되었다. frock과 같이 유행한 英國風의 조끼는 single型和 double型の 二種(single-doublebreasted waistcoat)<sup>54)</sup>[사진 2, 3참조]이 있었으며, double 조끼는 목 밑에까지 단추를 잠갈 수 있었다.

조끼도 市民服飾의 單純化의 영향을 받아, 下端이 짧아지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에서는 Salonfrock 밑에 입는 조끼는 아랫자락이 허리선까지 짧아졌고, 끝 자락의 양 끝이 갈라진 형태가 나타났으며, 이 조끼를 Veston이라 불렀다. 이는 프랑스 古有의 조끼인 gilet(자수나 화려한 무늬가 든 고급침으로 만든 조끼로, 아랫 자락이 길었고, 긴 列의 단추로 장식되어 있었다.)를 유행에서 밀어내었다. 革命期中 다시 gilet가 유행하였지만 Napoleon 帝政時에 Salonfrock의 유행함에 따라 Veston이 널리 애용되었다.

1812년 이후 조끼의 길이는 hip를 덮도록 길게 재단이 되었다. 유행에 따라 二列의 단추를 달았으며, 넓고 뽕뽕한 깃이 부착되어 조끼의 옷깃이 높이 솟게 되었다. 1818년에서부터 一列 단추양식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1818~1825년간에 두개의 서로 색이 다른 조끼를 겹쳐입는 것이 유행하였으나, 이 이후로는 하나의 조끼만을 着用하였다. 이에 따라 조끼의 높은 옷깃은 그 幅이 점점 좁아지게되며, 1825년에 옷깃의 윗부분은 바깥으로 접는 것이 유행되었다. 1836년에 나타난 큰 변화는 조끼 깃의 上部가 무척 넓어져서 가슴 부위 전체를 덮을 수 있었다.

이와같이 조끼의 Mode는 밑 자락의 길이와 옷깃의 폭, 옷깃을 세우느냐, 접느냐 및 단추의 配列에 나타나는 變化였다. 조끼의 Mode는 그 형태에 있기 보다는 오히려 화려한 옷감 선택의 個人的 嗜好에 영향을 받았다<sup>55)</sup>[사진 12]



[사진 12] 접은 collar의 셔츠에 밀고로 맨 긴 Tie. 二列 단추 높이세운 collar에 Bow Tie collar를 꺾은 셔츠에 附着式 넓은 Tie(plastron) (in: Thiel, Geschichte des Kostüms p. 554)

그러나 19世紀 中半期부터 화려한 色相의 조끼는 사라지게 되고, 上衣과 바지의 色調에 따라 조끼를 골라 입게됨으로서<sup>56)</sup> 조끼는 그 獨自性을 상실하게 되었다. 비로드 옷감의 조끼가 가장 오래 애용되었으나 점차로 사라지게 되고, 오직 밝은 흰색의 여름조끼만이 쉽게 세탁하여 입는 利點때문에 紳士服의 隸屬衣服으로서 남게 되었다. 유행의 獨自領域을 지켰던 조끼는 生活과 衣服의 合理的 調和를 이상으로 삼는 市民社會의 生活意識에 따라 간소화 되어갔다.

6. 목수건과 Necktie(cravates)

오늘날의 Necktie는 셔츠의 collar에 매는 목수건에서 발전하여왔다. 18世紀에 유행한 목수건은 비단 또는 綿으로던 길고 넓은 천으로서 목 둘레를 2~3회 감아서 크게 매듭을 지어 묶었다. 목수건의 부피를 크게 하기 위하여 제 2의 목수건을 밑에다 받쳐 감아서 목수건의 전체 둘레는 머리카기나 되었으며, 턱이 거의 파묻힐 정도였다. 귀족들은 흰색의 비단 목수건을 選好하였고, 18世紀末 市民들은 검은 목수건을 매었다. 아랫받침 목수건은 흰색천으로 그 가장자리가 밖으로 약간 보이도록 하였다. 특히 프랑스 혁명가들은 검은 목수건을 혁명의 표지로서 애용하였다<sup>57)</sup>.

Brummell이 목수건 매는 방식에 온갖기교를 과시한 바와 같이 19世紀 前後에 있어서 多樣한 형태의 목수건 매는 방법은 모든 멋쟁이 紳士들의 최대의 관심사였다.

1812년경 아래에 받치는 목수건은 유행에서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목수건의 부피는 축소되어갔다[사진 13]. 그러나 목수건을 떠받치기 위하여 셔츠의 목깃 가장자리를 높이 세우는 유행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때부



[사진 13] C. Bardua 畵: Carl Maria von Weber (1810年代) 흰 셔츠에 두번맨 목수건, 짧은 수건끝이 특징 (in: E. Kleßmann, Die Welt der Romantik p. 296)

티 목수건의 매듭을 前面에서 묶었고, 매듭의 양끝이 측면으로 넓고 뾰족하게 펼쳐서 위로 솟도록 하였다. 水平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돼지털이나 생선뼈를 받쳐 넣어서, 매듭의 양끝이 솟도록 하는 유행이 널리 퍼졌다. 이에 따라 샤쓰의 목깃을 목의 양편으로 곧게 솟도록 하였으며, 목수건 Mode의 변화는「Vatermörder」(父親殺害犯)이라는 별명이 붙은 셔츠깃을 유행토록 하였다<sup>60)</sup>. 그 크기와 부피가 줄어든 목수건은 1830年代에 이르러 cravates가 나타나게 되므로 점차적으로 유행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초기의 cravates는 bowtie(나비넥타이)형태로서 목수건의 매듭을 collar의 후면에 고정시켰다[사진 14] 日常用 cravates는 검은색의 값이 싼 천으로 만들었지만 夜會用으로는 흰색으로 고급의 공단으로 제작되었다. 19世紀 中半期에 들어서 cravates는 더욱 작아져서 간결하고 좁은 띠의 모양을 하게 되었다. bowtie 型의 매가 자연스럽게 밀어내어 흐르는 넥타이가 나타났다. cravates의 축소에 따라 샤쓰 collar의 크기도 줄어들고, 목을 자연스럽게 내놓는 유행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사무원, 공무원들의 프로필에 완고하고 경직된 이미지를 부여하였던 기묘한 형태의 뾰뚱한 셔츠 collar인 「Vatermörder」를 사라지게 하였다. 소위 「하이칼라」라고 불리우



[사진 14] 흑색線的 Cravate(1830年代)(in: Bilderlexikon der Mode p. 456)

는 이러한 경직된 셔츠 목깃과 뾰뚱하고 좁은 bowtie 양식은 우리나라에서도 日帝時의 경직된 사회의 유행 의상이 되었었다. 19世紀 후반기 cravates는 조끼와 上衣의 형태와 색상에 맞추어서 착용하는 유행의 accessoires(부속물)의 기능만 발휘할 뿐이었다.

19世紀初에는 流行의 獨自能力을 가졌던 목수건은 男性服飾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急速度로 진보하는 産業市民社會의 生活方式은 목수건과 cravates가 服飾에서 차지하는 位置를 格下되도록 하였다.

## 맺 는 말

19世紀는 市民文化가 꽃 피기 시작한 시대였으며, 따라서 市民階級の 衣裳이 流行의 主導의 役割을 담당하였다. 19世紀 紳士服 Mode가 表出하는 單純性과 直線美의 優雅함, 그리고 身體와의 자연스러운 構成과 比例를 原則으로 삼는 近代의 裁斷法은 近代市民社會의 活動的 生活方式과 民主主義의 社會意識에 相應하는 것이다. 紳士服은 合理性에 準하는 Mode의 變化를 示顯하였다. 紳士들의 日常服은 동시에 직업상의 활동복

이 되었고, 또한 大衆化됨으로 衣裳의 民主化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合理的이고 機能的인 의상으로 發展되면서 장식적이고 과잉적인 부분들, 例컨대 옷깃의 수효와 幅, 단추의 例, 질거나, 넓은 옷 자락등은 사라지게 되었고, 衣裳의 중요한 各部分들 역시 各己의 機能에 맞도록 그 길이와 폭이 축소되었다. 이리하여 조끼, 셔츠, 목수건, 넥타이 등은 Mode의 獨自領域을 상실하여 갔다. 그 대신에 의상 各 부분들의 調和로운 構成美와 우아함이 Mode의 새로운 境地로 출현하게 되었다.

衣裳의 單純化는 色相選好에도 적용되어 검은색, 파랑색, 갈색, 회색 등의 어두운 색이 紳士服 Mode의 主色相을 이루었다.

市民衣裳의 民主化의 한 表現인 이 單純美의 우아함은 市民階級の 獨自인 流行意識을 형성케 하였다. 은근한 우아함을 강조하는 Mode感覺은 市民階級的의 流行을 主導하는 부유하고 교양있는 紳士들의 所有物이 되었다. 優雅한 衣裳의 着用은 유행의 추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부유한 소수의 유행주도계층의 社會的, 文化的 優位性을 顯示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19世紀 紳士服의 單純美와 의상 各 부분이 조화되면서 생성된 우아함은 또한 20世紀男性 衣裳美의 要諦를 이루고 있다.

### 引 用 文 獻

- 1) Lauer, Robert H. and Lauer, Jeanette C., Fashion Power, New Jersey 1981, p.4
- 2) Horn, Marilyn J./Gurel, Lois M., The Second Skin, Boston 1981(1968), p.282
- 3) Hurlock, E., The Psychology of Dress, N.Y. 1976, p.27-28. Flu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N.Y. 1930, p.138
- 4) Ryan, Mary Shaw,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1966, p.69
- 5) Laver, James, The Concise History of Costume and Fashion, N.Y. 1969, p.108
- 6) Thiel, Erika, Geschichte des Kostüms, Berlin 1978, p.376
- 7) Mann, Golo(Hrgb.), Propyläen Weltgeschichte Bd. VII-1, Von der Reformation zur Revolution, Frankfurt a.M. 1976(1964), p.260
- 8) *ibid.*, p.273
- 9) Thiel, *op. cit.* p.428
- 10) McJimsey, Harriet T.,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Ames/Iowa 1973, p.9
- 11) Horn/Gurel, *op. cit.*, p.283
- 12) Robert/Lauer, *op. cit.*, p.18
- 13) Lester/Kerr, Historic Costume, Illinois 1967 (1925), p.155
- 14) Parsons, Frank A., The Psychology of Dress, N.Y. 1975(1920), p.296
- 15) Brooke & Laver, English Costume of the 19. Century, London 1977, p.355
- 16) Thiel, E., Künstler und Mode, Berlin 1979, p.26
- 17) Köhler, Carl, Praktische Kostümkunde, I, München 1926, p.9
- 18) Hurlock, *op. cit.*, p.111
- 19) Thiel, Erika, *op. cit.*, p.480
- 20) Allen, Agnes, The Story of Clothes, London 1975, p.224
- 21) Waugh, Norah,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London 1972(1964), p.151
- 22) Hurlock, *op. cit.*, p.112
- 23) Stockar, Jürg, Zurich-Mode durch die Jahrhunderte, Zurich 1974, p.162
- 24) Thiel, Erika, *op. cit.*, p.483
- 25) *ibid.*, p.482
- 26) *ibid.*, p.484
- 27) Brummell 자신은 破産을 하고 Paris로 도피하였으며, 1814년 死亡함.
- 28) Rosencranz, Mary L., Clothing Concepts, N.Y. 1972, p.283
- 29) Brooke & Laver, *op. cit.*, p.354
- 30) Thiel, Erika, *op.cit.*, p.431
- 31) *ibid.*, p.429
- 32) Black, J. Anderson/Garland, Madge, A History of Fashion, London 1980, p.164
- 33) Thiel, Erika, *op.cit.*, p.457
- 34) Black/Garland, *op. cit.*, p.161
- 35) Thiel, Erika, *op. cit.*, p.458
- 36) Köhler, *op. cit.*, p.499
- 37) Wilcox, R. Turner, The Mode in Costume, N.Y. 1958, p.294
- 38) Thiel, Erika, *op. cit.*, p.549
- 39) *ibid.*, p.549
- 40) Wilcox, *op. cit.*, p.295

- 41) Köhler, op.cit., p. 458
- 42) Cape 는 Inverness Cape 라는 이름으로 1887년 전·후하여 다시 유행하였다(Scotland 의 Inverness 港口에서 由來). 石山 彰(編), 服飾辭典, Japan 1972, p. 223. Wilcox, op. cit., p. 298
- 43) Wilcox, op. cit., p. 262
- 44) 영국의 장군 Sir Henry Havelock(1795~1857)에서 유래한 외투이름. Kybalová/Herbenova/Lamarová, Das große Bilderlexikon der Mode, Prag 1966, p. 585
- 45) 영국의 元帥 Lord Raglan(1788~1855)에서 유래한 외투이름. Kybalova, ibid, p. 586. Wilcox, op. cit., p. 297
- 46) Thiel, op.cit., p. 526
- 47) Köhler, op. cit., p. 426
- 48) Black/Garland, op. cit., p. 164
- 49) Thiel, op. cit., p. 462
- 50) ibid., p. 464
- 51) Black/Garland, op. cit., p. 178
- 52) Köhler, op. cit., p. 453
- 53) ibid., p. 455
- 54) Hill, Margot H./Bucknell, Peter A., The Evolution of Fashion-Pattern and Cut from 1066 to 1930, London 1983(1967), pp. 142, 146
- 55) Köhler, op. cit., p. 455
- 56) ibid., p. 456
- 57) Kybalová, op. cit., p. 441
- 58) Stockar, Jürg, op. cit., p. 181